

(2017. 12. 16 시행) 지방직 9급 기출문제 [국어(C 책형) 해설]

[안 한 섭 선생님]

제일고시학원(본점/중앙로점) www.okpass.com

1. ④

해설:

괘념(掛念): 마음에 두고 걱정하거나 잊지 않음

발취(拔萃): 책, 글 따위에서 필요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가려 뽑아냄. 또는 그런 내용.

와해(瓦解): 기와가 깨진다는 뜻으로, 조직이나 계획 따위가 산산이 무너지고 흩어짐을 이르는 말.

제원(諸元): 기계류의 치수나 무게 따위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數的) 지표.

2. ③

해설: 남편의 누나는 '형님'으로 부른다.

오답 해설:

①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으로 불러야 한다.

② 남편을 '오빠'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③ '부인'은 '아내'의 높임말이므로 자기 아내를 낮추어 지칭할 경우에는 '아내, 집사람, 안사람'으로 지칭해야 한다.

3. ①

해설: 셋째 문단에서 개인적 계몽에 성공한 이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발표하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계몽 정신은 자연스레 널리 전파될 것이고 사람들은 독립에의 공포심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는 성년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①은 틀린 설명이다.

4. ②

해설: 이 시는 인간의 이별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다시 말해 결별의 슬픔을 극복하면 영혼이 성숙된다는 것을, 꽃이 진 후 열매를 맺는 것으로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②가 적절하다.

5. ③

해설: '떠돌아다니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오답 해설:

① → 얹히고설켜서

② → 너밖에

④ → 속절없는

6. ③

해설: 방약무인(傍若無人):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

7. ③

해설: ㄷ은 랍스터/로브스터, ㄹ은 컨테이너로 써야 한다.

8. ③

해설: 태도(態度)로 써야 한다.

9. ④

해설: 대응하는 단어, 즉 유의어가 맞는지 묻는 문제이다. ‘게재(掲載)’는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음을 뜻하고, ‘게시(揭示)’는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을 뜻하므로 ‘게재’가 아니고 ‘게시’라고 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에서 ‘달다’는 ‘사람을 동행하거나 거느리다’의 뜻이므로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거느려 함께 함’을 뜻하는 ‘대동(帶同)’으로 적을 수 있다.

②에서 ‘달다’는 ‘장부에 적다’이므로 기록(記錄)으로 적을 수 있다.

③에서 ‘달다’는 ‘어떤 기기를 설치하다’이므로 설치(設置)로 적을 수 있다.

10. ③

해설: (마) 문단을 보면 불행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나와 있다. 따라서 그 앞에는 행복해지지 못하는 내용이 나와야 하므로 (마) 앞에는 (다)가 와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라)를 보면 ‘하지만’ 최소한의 여건을 자족하면서 정신적 창조와 인격적 성장을 꾀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따라서 (다)-(마)-(라)가 이어지는 ③이 적절하다.

11. ④

해설: ㉠ 뒤에는 타이타닉 호 속의 일상사가 나왔으므로 ‘예를 들면’이 적절하고, ㉡ 뒤에는 타이타닉 호의 바깥에는 바다가 있고, 빙산이 있다고 했으므로 아무런 현실이 없다고 한 앞의 내용과 상반되므로 ‘그렇지만’이 와야 한다. ㉢ 뒤에는 앞 문장과 유사한 내용이므로 ‘말하자면’이 적절하다.

12. ②

해설: ㉠의 앞에는 황사의 좋은 점을 말했고, ㉡의 뒤에는 황사가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했으므로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또는 ‘하지만’이 적절하다.

13. ①

해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유럽의 18~19세기를, 두 번째 문단에서는 20세기에 이르러 사태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을 서술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지성의 임무’와 그것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①이 적절하다.

14. ①

해설: 요절한 누이를 미타찰에서 만나기 위해 불도를 닦아 기다리겠다고 했으므로 누이와의

2017. 기출문제 해설

재회를 소망한다고 한 ㉠이 적절하다.

15. ㉡

해설: ‘반영하기’는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청자의 적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므로 ㉡가 적절하다.

16. ㉡

해설: ‘명사 구실을 하는 어미’라고 했으므로 접미사가 아니라 어미를 찾아야 한다. 즉 용언을 찾으라는 말이다. 따라서 ㉡가 정답이다. ㉡에서 ‘높음’은 형용사 ‘높다’의 명사형 어미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모두 명사이므로 접미사에 해당한다.

17. ㉡

해설: ㉠과 ㉣은 모두 3인칭 대명사이다.

18. ㉠

해설: ㉡ 피카소와 브라크는 ㉣세잔의 영향을 받아 ㉠르네상스 화가들의 원근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실험했다고 했으므로 ㉠이 적절하다.

19. ㉢

해설: 두 번째 문단에서 ‘는, 을’은 분리하여도 제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고, 이런 이유로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고 했으므로 체언 등에 붙어서 쓰이므로 단어라고 한 ㉢은 적절치 못하다.

20. ㉣

해설: ㉡에서 행복동 주민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항의이며 저항의 목소리이다. 그런데 뒷부분에서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했으므로 삶이 개선될 것을 암시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